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70호(2000/10/22)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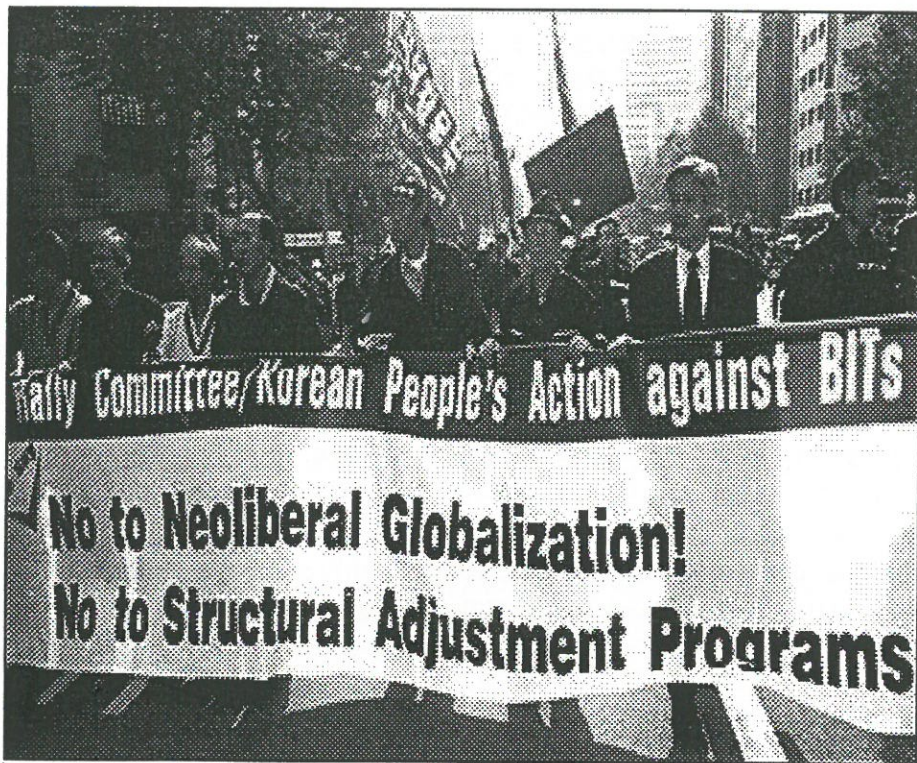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신자유주의 반대!"



<오마이 뉴스> 10월20일

이야기 하나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조은영(사회권위원회 자원활동가)

키다리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낯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니 조금 쑥스럽습니다.

아마도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쓰던 주디의 심정이 이랬겠지요?

당신이 이 편지를 받으실 때 즈음이면 이미 아셈 회의는 끝이 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지 그 뒷이야기가 무성하겠지요? 그런데도 지금 전 우리가 왜 아셈에 반대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아셈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일 방송에서 이번 아셈 회의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뤄 내기 위해서 당신은 그 기간동안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며, 자고로 도로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몰래 몰고 나간 차량으로 피같은 돈을 경찰에게 강탈당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IMF하에서도 1조 5천억이나 쏟아 부은 아셈타워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은 실업자로서 온 가족이 무기한 다이어트에 돌입하셨겠지요. 어쩔 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처럼의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게를 하고 있다면 하루수입은 공치는 거지만...

아셈은 1996년 1차 방콕회의에서 회의 개최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례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이어 1998년 2차 런던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들과 후속사업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아시아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출되었죠. 지금은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며 점점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한 비전과 목표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를 채택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요컨대, 아셈의 프로젝트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아시아·유럽 지역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초국적자본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을 자유롭게 피해가며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NAFTA에서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는 묵살될 것이고 정리해고가 예정된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은 당연하겠죠.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라, 위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이번 3차 아셈 회의가 끝나면 한국은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정리해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이번에 기름값 인상으로 오른다는 전기료(아시죠? 우리나라는 화력이 20%도 안되는거... 기름값 인상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는 아마도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밑작업이란 얘기가 있어요. 민영화되고 가격이 오르면 반발이 심할테니 미리 이윤추구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거죠.. 국민은 워낙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카라카스처럼 빵값(물론 우린 밥값..)이 200%인상되고 교통비와 기타 생필품비가 올라서 시위했다가 IMF에 의해 무차별 총격같은 걸 받으면 정말 어떡해요?

그래서 이번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구요. 이곳 한국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그리고 IMF 덕분에 금융세계화가 양산해 낸 비정규직, 실업자, 빈민이 있으며,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울거라는 걸요. 그럼으로써 씨애틀, 프라하에서 이어져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이곳에서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회의를 치르고 나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건강하세요... 꾸뻑!

당신의 주디로부터..

이야기

"고발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김정아(인권영화제 담당 상임활동가)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

영화를 통해 인권을 말하고, 인권의 눈으로 영화를 만나는 공간, 제5회 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1회, 제2회 때의 때서운 탄압을 뚫고, 어느덧 5회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역시 굵직한 국내외의 '인권'영화 29편을 엄선했습니다. 작품들은 모두 상업주의가 내미는 말초적인 '재미'와 맞서 진실에 이르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체 게바라', 35m 필름 야외상영

기존 영화제에서 모든 작품을 비디오 상영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35mm 필름 상영을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작품은 남미의 혁명가 체 게바라에 대한 다큐멘터리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입니다. 스위스의 문화홍보단체 '프로 헬베티아'의 협조를 얻어 프린트를 무료로 대여 받았습니다. (운송비도 공짜) 감독 리처드 딘도는 게바라의 마지막 빨치산 투쟁을 기록한 『볼리비아 일기』를 토대로 '빨치산 게바라'를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비라의 모습이 한국에 처음 공개되는 셈이지요. 10월 27일 이화여대 내 이화광장에서 야외상영될 예정인데 날씨가 고약해지면 (비, 눈, 강풍 등) 법학관 강당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히스테리를 비판한다

5회 인권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 <대지의 소금>과 <처벌에 맞춘 범죄>일 것입니다. 좌익사냥이 극에 달했던 매카시 시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이 뉴멕시코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기록한 영화 <대지의 소금>. 우리나라의 <파업전야>와 같은 대접을 받는 이 작품은 미국독립영화의 자랑스런 성과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탄광노동자와 그의 부인들이 직접 연기한 이 작품은 뉴멕시코의 독특한 정서와 탄광노동자들의 진솔한 삶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이 지닌 '농담'이 작품 전반에 가득해 '재미'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과 제작진을 다시 만나 본 <처벌에 맞춘 범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들 역시 모두 28일 이화광장에서 야외 상영됩니다.

또한 미디어와 인권의 문제를 고찰해 보는 '미디어와 인권' 부문의 세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선전 만화영화가 미친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본 <데이터>와 상업미디어의 왜곡보도를 고발하는 <판단>,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의 한 일간지 '네이션'을 통해 미디어와 사회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는 <데일리 네이션>이 그것입니다. 작품 상영 후 '범죄 보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크쇼(28일(토) 6시 30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널로 참석하실 분들은 차병직 변호사와 한겨레 신문의 김창석 기자, 민언련 TV 모니터 분과의 이지혜 간사입니다. 사회는 미디어오늘의 남영진 사장님이 맡아주십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동성애인권 등 각종 토론회 마련

5회 인권영화제는 최근 홍석천 씨의 아웃팅으로 촉발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제3회 상영작이었던 <제9법안 찬반투표>을 특별상영합니다. 이 작품은 미국 오레곤 주에서 있었던 '반동성애 입법'을 두고 찬반 운동을 벌이는 과정을 밀착 취재한 작품입니다. 98년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올해 다시 관객을 만나게 되었지요. 물론 이야기 마당도 펼쳐집니다. '동성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토론 마당(29일(일) 7시 30분)이 그것입니다. 동성애운동 꾸준히 해 오신 동성애자인권연대 간사와 버디 편집장 등이 패널로 나섭니다. 또, 하와이 미군기지 문제를 다룬 <카호 오라위>,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매항리 문제 등을 살펴본 <평화의 시대>등 미군기지 관련 작품들의 상영 후, 이에 대한 토론회(28일(토) 6시 40분,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김용한 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님이 함께 합니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케빈 맥케이넨 등 초청

올해 인권영화제는 두 명의 해외 감독을 초청합니다. 우선, 나토와 터키 등의 등쌀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쿠르드족을 9년 동안에 걸쳐 취재한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의 감독 케빈 맥키넨. 맥키넨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00년 애틀랜타 영화제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산타바바라 영화제에서 '인권상'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9

년 동안의 경제 제재 속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겪은 참상을 고발한 영화, 〈바그다드의 비가〉의 감독 사이드 카도(레바논) 역시 관객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감독 모두 자비로 먼 길을 오시겠다고 해 저희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4월 9일〉 등 주옥같은 한국작품 9편

인권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에 힘을 북돋기 위해 99년부터 신설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이 올해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상금을 후원하는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에 오른 국내작품은 모두 9편. 인혁당 사건을 되짚어보는 〈4월 9일〉,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식당 아주머니들의 복직투쟁을 담은 〈평행선〉, 인도 카스트제도의 비극을 담은 〈보이지 않는 전쟁〉, 버마한국NLD 당원들의 투쟁을 담은 〈데모크라시 예더봉〉, 매매춘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초등학교 1학년 경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엄마와 섬그늘〉, 미군기지 투쟁에 대한 일제언 〈평화의 시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삶을 따뜻하게 그린 〈나는 행복하다〉, 현대중기 해고자들의 투쟁 보고서 〈인간의 시간〉 등입니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은 11월 1일 폐막식 때 열립니다.

누구나 발 디딜 수 있는 장이 되고자

“예매는 어떻게 하나요?” “비씨카드로 관람료를 결제할 수 있을까요?” 인권영화제를 앞두고 사무국에 걸려오는 문의중 대다수는 관람료를 묻는 전화입니다. 일상적인 전화에 이젠 대답마저 정해져있지만 때면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인권영화제는 그래서 입장료를 받지 않으려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게 턱을 얹애고 교육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신념처럼 그렇게 영화제를 열어놓으려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영화제 사무국과 영화제를 후원하는 분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더라도 우리의 작은 보탬이 이땅의 '인권'을 풍요롭게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영화제가 많은 이들의 두꺼운 갑옷을 녹이는 무엇인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고 때론 것들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공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보탬을 기반으로 형성되길 원합니다.

*후원회비

- 10,000원 (제 5회 인권영화제 해설책자 증정)
- 20,000원 (제 5회 인권영화제 해설책자와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 증정)
- 100,000원 (제 5회 인권영화제 해설책자와 [황제의 새 옷],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 [대지의 소금], [평행선] 중 택3)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21-0276-824(서준식) / 농협 033-02-119388(서준식)
- 우체국 010892-0079460(김정아 인권영화제) / 제일은행 110-20-342272(서준식)
- 신한은행 221-12-068108(인권영화제 김정아) / 한빛은행 112-07-226091(김정아)

〈영화제 일정표〉

27일(금)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5:00 - 5:15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외, 애니메이션)

5:25 - 6:50 스코츠보로; 미국의 비극(외)

이화광장(야외상영)

7:00 - 8:20 개막식 2000 인권뉴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 하이라이트] [상영작 하이라
이트] 상영

8:30 - 10:00 에네스트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
기(외)

28일(토)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1:00 - 2:20 세계은행 부수기(외)

2:30 - 4:20 평행선(국)*

4:30 - 6:20 바그다드의 비가(외)* (감독과의 대
화 취소 시 '판단' 상영)

6:30 - 7:30 마리아나의 눈동자(외)

상영관 1 - 법정대 법학관 405호

1 1:00 - 2:20 나는 행복하다(국)*

2:30 - 3:30 사라 바트만의 생애(외)

3:40 - 4:30 덕테이터(외)

4:30 - 5:00 판단(외)

5:10 - 6:20 데일리 네이션(외)

6:30 - 7:30 [부대행사] '미디어와 인권' 패널토론

상영관 2 - 학생회관 4층 씨네마텍

1:00 - 2:15 미국의 비극 스코치보로

2:20 - 3:50 평화의 시대(국), 감독과의 대화

4:00 -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외)

5:40 - 6:40 카호 오라이(외)

6:50 - 7:40 [부대행사] '미군기지'에 대한 패널토론

이화광장(야외상영)

7:40 - 10:0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외)

29일(일)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1:00 - 1:20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 시리즈
(외, 애니메이션)

1:30 - 2:50 엄마와 섬 그늘(국)

3:00 - 5:20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외)*

5:30 - 7:10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
고서(국)*

7:20 - 9:40 대지의 소금, 처벌에 맞춘 범죄(외)

학생회관 소극장 - 학생회관 1층

1:00 - 3:20 인간의 시간(국)*

3:30 - 6:10 바람과 함께 오고간다(외)

6:20 - 7:15 베트남; 마지막 전쟁(외)

7:20 - 8:35 제9집안 찬반 투표(외)

8:40 - 10:00 [부대행사] 토크쇼 '동성애 무엇이
든 물어보세요'

30일(월)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5:00 - 7:40 4월 9일(국)*

7:50 - 8:50 버림받은 사람들(외)

9:00 - 10:00 고향(외)

31일(화)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5:00 - 7:20 데모크라시 예더봉*

7:30 - 9:30 보이지 않는 전쟁(국)*

1일(수)

법정대 강당 - 법학관 1층

5:00 - 5:55 사라바트만의 생애(외)

6:05 - 7:40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외)

7:50 - 10:00 폐막식,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상영

- * 는 감독과의 대화

- 야외상영시에는 옷을 두툼히.

- 이대 지하철 역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됩
니다.

사/업/보/고

(2000년 9월 넷째 주부터 2000년 10월 셋째 주까지)

사회권위원회

‘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지난 9월 초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본 보고서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민변에서 열린 회의 때는 스위스 제네바의 파스 로마나 사무국장이자 사랑방 선배인 이성훈 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훈 씨는 ‘연대회의’를 대신해 지난 9월 4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97년 말 이후 한국에 대한 IMF의 요구가 사회권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꼼꼼히 논증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 사회보장, 여성, 건강, 교육, 아동, 문화, 장애인, 환경 등 각 분야별 집필도 시작되구요.

□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저지하기위해

비정규직과 관련해 노동법이 개악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직의 계약기한 연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약 기한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한을 정한 노동, 즉 계약직(임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나 ‘기한이 정해져있는 사업’ 등 특수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반기에 노동법 개정 투쟁을 준비하던 노동 및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개악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견철폐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도 다른 단체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현실이 보여주듯 비정규직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구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향한 질주’란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가는 우리의 고용구조에 딱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계약기한 연장 방침’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노릇이지요.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계약기한 연장’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개악되는 부분은 필사적으로 막아야겠지요?

□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운동

6차 워크숍은 사회권위원회 빈곤팀에서 작업한 빈곤보고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각 영역의 담당자들이 ▲인권의 시각에서 본 빈곤(이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빈곤 실태(김지수, 조은영)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투쟁(최은아, 황은영)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박래군) 란 소주제를 발제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결론으로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빈곤과 발전권의 상관관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 ▲경제세계화와 인권운동 ▲신자유주의 해

체와 세계화 반대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빈곤보고서에서 다뤄질 내용은 19일 간담회를 통해 건국대학교에서 아셈민간포럼에 참석한 해외인권운동가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 사회권위원회, 가을 나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자원활동가들과 상임활동가들이 11월 첫 주에 MT를 갑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회권사업을 전담하는 사회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다 사업 중 하나인 '아셈 관련 대응'이 마무리는 시점이라 앞으로의 전망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거죠. 각자 활동의 고민도 털어놓구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유권 위원회

10월부터 김정희 씨가 사랑방을 나오시지 않으십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대신 일명 똥탱이 활동가인 심태섭 씨가 자유권 위원회 소속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결합하는 일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사업을 꾸리는 일로 하루가 바쁘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은 작년과 비교해볼 때 크게 변화된 점은 없습니다. 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토론회 내용을 보면, 불교지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는 삭제의 입장도 내비치는 듯 하나, 7조 3항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서는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청원하기 위해 정범구 의원을 포함한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서는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적표현물 정보공개' 2차 소송, 11/2

'이적표현물 목록'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1월 2일에 열립니다. 이 소송은 검찰이 내세우는 이적표현물의 실체를 점검하고, 검찰 운영기관인 <민주이념연구소>의 활동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꾸려가고 있는 자유권위원회는 보안관찰법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구상단계인데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방의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인권교육실

□ 아리기사업, 청소년 사업에 힘쓰기

유엔 아동권리조약에 따라 민간단체 보고서를 준비해온 <아이들의 권리 찾기>사업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사가 2002년 6월로 정해짐에 따라 약간의 일정 조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기적 청소년 인권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획했던 보고서 사업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를 하나씩 사회이슈화 하고 청소년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 속에서 그 내용을 채워가려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요구와 맞물려 억압적인 학교교칙이 문제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칙 모으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적인 억압은 다른 어

편 실정법보다 자기 학교의 교칙에 있다는 생각에서 되도록 많은 교칙을 모아 분석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폐지 대체입법 운동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이름에 맞게 제 역할은 못하면서, 그간 문화창작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점은 이미 법 제정 처음부터 우려돼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제안으로 문화창작 단체와 교육,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 공대위는 11월중 정식 출범을 계획하고, 10월에 2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대신에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 진흥법(가칭)으로의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의 허구성과 그 폐해를 알려내고 이슈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박차

- 청소년 인권교재 개발팀이 매주 한번씩 모여 '프로그램 개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2-3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의 내용을 직접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을 계획입니다.

- 청년 후원회원 모임 '꿈꾸는 사람들'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 교육용'으로 생각하며, 직장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을

계획입니다.

- 영국에 있는 단체인 'Peace Child International'에서 전세계 아동들의 참여로 만드는 아동용 인권교재 제작에 참여합니다. 사랑방은 2년 전에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인권교재'에 참여한 적이 있고, 현재 그 책은(Stand Up for Your Rights)은 번역되어 국내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21세기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21st Century)에 대한 번역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출판을 위해 연말까지는 번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

□ 온라인 인권정보자료실, 시범운영 끝내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인권정보자료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70여건의 자료를 신청 받았습니다. 주로 소수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교육에 관련된 자료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방문자들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인권정보자료실 초기메뉴 중 신착자료 소개는 당분간 별도의 메뉴로 선정해서 관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남은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그 이후 정보자료실이 자료수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때부터 신착자료 메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정한 주기로 신착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됩니다.

현재 온라인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목록이 전부이지만 앞으로는 자료전문을 올리는 일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국제인권조약 꾸러미를 만들어 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기준, 원칙, 선언 등을 전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 같은 기본 장비가 필요하지요.

사/랑/방/동/정

■ 새 단장한 사랑방

사랑방활동가들이 대대적인 사무실 환경미화를 단행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너저분하게 살고 있다는 반성에서입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페인트칠을 하고 도배를 하고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배출됐고요. 부엌도 밥맛 나는 곳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원활동가 분들께서 훌륭한 도배 솜씨와 페인트 솜씨를 보여 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미화 비용은 서 대표님께서 주머니를 털어 주셨습니다.

■ 자료실 자원활동가 3인방

많은 자원활동가께서 사랑방에 나와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요즘 뭐니뭐니해도 가장 빛나는(?) 자원활동가는 자료실에서 꾸준히 자료를 입력해주시는 백은관, 이선경, 이대식 씨 3인방입니다.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덕택에 지난달 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자료서비스 시작에 이어, 올해 말이면 영문, 일문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 3인방 자원활동가분들께 이 공간을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기를 잡힌 삼선교 사무실

서 대표님의 집무실이자 사랑방의 제 2의 동지 삼선교 사무실이 이사 한달 만에 제대로 기틀을 잡았습니다.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부터 회의실탁자, 컴퓨터 등 사무실 기기까지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았고요, 이곳에 파견된 김보영(감육담당),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창립준비) 씨 역시 새 사무실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준식 대표님은 집안이사에 사무실 정비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바빴던 일정에 더욱 바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와 감육 전문 단체 (가칭) '간한자들의 벗'의 창립 준비가 진행될 겁니다.

삼선교 사무실에 연락을 하실 분은,

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 1가 44번지 303

전화: 02-3675-5363~4/팩스: 3676-130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제 비상!! 집나는 활동가

코앞으로 다가온 영화제 준비에 귀가할 틈이 없는 영화제 담당자 김정아 씨와 유해정 씨가 급기야는 사무실 앞에 한 달만 사용할 방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얻어본 자취방 중에 최고"라는 두 분의 흡족함에도 불구하고 방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서 "방 값이 아까운" 지경입니다. 두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5회 인권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임활동가들 아르바이트 전선에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속속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방 활동가들은 스스로의 자활 능력을 키우고, 활동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활동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주영씨가 파트타임 학원강사를, 류은숙 씨가 주말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이창조씨가 드라마 왕건 엑스트라를 경험했습니다. 이창조 씨는 연예계 진출이 소원이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엑스트라 한 것으로 스타가 된 양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왕건을 보시거든 왕건이 금성에 입성할 때 서 있는 장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명문 씨는 이번 주말부터 호텔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재정보고에서 활동가 기여금은 활동가들이 보태는 사랑방 운영자금입니다.

2000년 9월 회계 보고

(2000년 9월 18일 - 10월 15일)

이월금 : 1,470,370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3,028,060원 -하루소식 2,780,070원 구독료(140명) 2,258,490 하루소식 기사 배급 324,180 인권시평 배급 197,400 -간행물 및 자료판매 92,500원 인간답게 살권리 2권 한국 감옥의 현실 1권 하루소식합본호 8권 -자료제공비 55,490원 -강연료 100,000원 후원금 2,672,250원 -정기회비 2,672,250 활동가 기여금 350,000원 차입 1,000,000원 기타 22,508원 -은행이자 1,938 -기타 20,570	사업비 441,060원 -하루소식 123,830원 -자유권위원회 59,110원 -사회권위원회 24,450원 -인권교육실 10,000원 -취재비 58,000원 -연대사업비 100,000원 -후원회원 소식지 65,670원 활동비 4,610,000원 사무실유지비 958,010원 통신비 1,087,580원 -전화, 팩스 921,980 -통신, 인터넷 165,600 사무비품 478,600원 사무국 식비 281,160원 생활비 120,080원 기타 709,900원 -인권운동연구소 설립자금 400,000 -사무기기 구입비 202,000 -명함제작비 79,000 -기타 28,900
총수입: 8,543,188원	총지출: 8,535,340원
잔액:	7,848원
현 부채:	2,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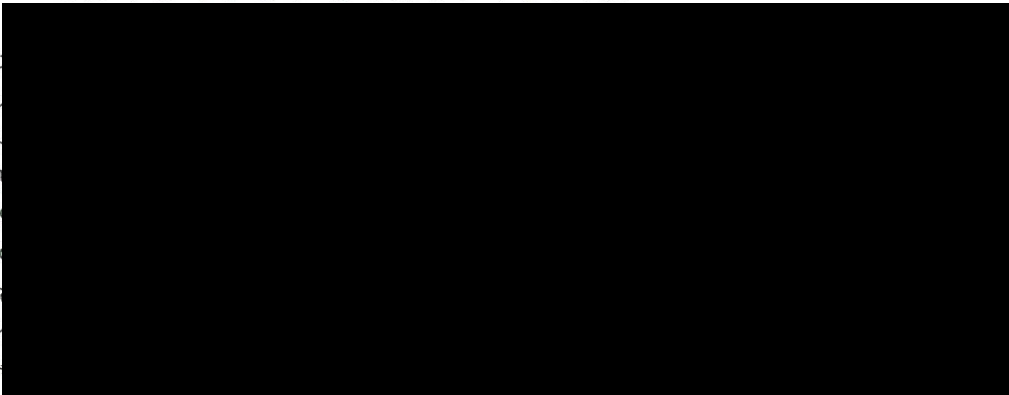
특별사업기금 적립액 : 4,480,810원

이 기금은 불심검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분들의 승소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사랑방이 진행하는 특별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000년 9월 재정 세부사항>

- 지난 8월 익명의 후원금 1천만 원이 사랑방 계좌로 입금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를 고민해 오던 중 '인권운동연구소' 창립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을 얻는데 사용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운동연구소를 통해 그 뜻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권운동연구소의 설립 시까지 창립준비금으로 사랑방에서 월 4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 소액후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현탁, 이진이 씨를 포함해 익명의 후원자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용지구입과 프린터 잉크 구입 등으로 인해 사무비품비의 지출이 많습니다.
-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사랑방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임활동가 총원과 인권운동연구소 설립자금 투입으로 인해 적자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의 연체액은 이미 십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런 분들은 분할납부를 신청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한달에 2구좌(한달 1만원)이상 후원하시는 후원회원께는 인권하루소식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인권하루소식을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후원회원이 계시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 9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가나다순)



후원회비 납부계좌



문의: 총무 유해정(02-741-5363)